

#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 Grandchildren Caregivers' Subjective Well-being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조윤주\*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Doctorial Course : Cho, Yoon Joo

### 〈목 차〉

- |           |                     |
|-----------|---------------------|
| I. 문제 제기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연구 방법 | IV. 논의 및 결론<br>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riables which account for grandchildren caregivers' subjective well-being.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100 grandmothers who are currently caring for grandchildren.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Job Content Questionnaire' by Karasek(1979), '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 by King, Mattimore, King, & Adams(1995), 'Social Support Scale' by Park(1985) and 'Psychological Positive Functioning' by Ryff(1989).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randchildren caregiving's demand level was negatively related to grandmothers' subjective well-being, but it's control and support level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m.

Second, the variables that explained grandchildren caregivers' subjective well-being were their marital status, income, material reward, and family support. When they had a husband, the more money they had, and with more rewards for caregiving plus family support given, the more positive subjective well-being they had.

**Key Words** : 손자녀 양육(Grandchildren Caregiving), 요구-조절-지지 모델(Demand-Control-Support Model),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 주저자, 교신저자 : 조윤주 (biju0501@hanmail.net)

## I. 문제 제기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8명으로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세계에서 최저의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6년 5월 9일자). 기혼 여성들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 시설의 부족과 과도한 교육 비용을 언급한다. 더욱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는 세대를 볼 때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전자의 이유가 보다 일차적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남녀평등고용법에서 직장 보육 사업을 공표한 이후 직장 보육 시설을 포함한 기타 보육 시설들이 확충되고는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육 시설들은 아동의 연령이 최소 3세 이후에나 이용 가능한 것이 대부분으로 영아 전문 보육 시설은 극히 일부이다.

보육에 관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기관에 재원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되어도 부모나 친지 또는 이웃이 양육을 담당하는 사적 보육에 의존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중 친손주든 외손주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대개 조부모 양육은 조모 양육과 동의어로 통용된다. 그러나 노인이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생산적인 활동의 일부로 간주하기보다는 가정내에서 여성들이 행하는 돌봄의 노동이 그러하듯이 가치가 평가절하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Bass와 Caro(1996)는 손자녀 양육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사회적 기여분을 분석하였더니, 한 해에 약 170억 달러에서 29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여, 유형·무형으로 상당히 가치있는 활동임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손자녀 양육은 사회적 차원에서

도 일익을 담당할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조부모 양육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담당 노인의 역할을 ‘책임감 없는 즐거움’의 근원으로만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에 관해 축적된 연구 결과들은 손자녀 양육 활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후자의 입장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노년기에 체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때와 맞물려 과중한 육아 활동은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시기는 가사나 육아에서 벗어나 친구나 친척 관계에서 사교적인 활동을 추구하여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활동 제한은 고립감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세대 자녀와 육아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가족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Hayslip, Henerson, & Lambert, 1998; Jendrick, 1994; Minkler & Roe, 1996).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키울 때보다 손자녀 양육시 참여 노인은 유능감을 더 많이 느끼거나, 조모-손자녀간 애착 관계를 통해 노년기의 정서적, 심리적 소외감이 감소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긴밀해짐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노인이 자녀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호혜적이고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권인수, 2000; 서병선, 1995; 한혜자·류창희·이영세, 2001; Burton, 1992; Burton & Devries, 1992; King & Elder, 1998; Minker, Roe, & Price, 1992).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나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손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등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의 손자녀 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점

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 빈도, 할애 시간 등 외형적인 실태 조사 수준에 머무를 뿐 활동의 특징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거나 모델에 기초하여 접근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이론적 토대 위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수행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과 활동을 수행하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행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활동과 활동의 환경을 계획해야 하는 이유는 활동의 주체가 노인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활동 이론에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해도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노인에게 이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노년기는 발달 단계상 발달보다는 쇠퇴가 증가되는 시기이다. 손자녀 양육이라는 외부 자극에 따른 반응으로서 노인이 유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동시에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Barnes-Farrell(2005)은 고령자의 활동과 연관이 많은 모델의 하나로 Karasek(1979)의 ‘요구-조절 모델(Demand-Control Model)’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발달상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므로 고령자와 특히 관련이 많은 모델이라고 강조한다. Karasek(1979)은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할 때 활동의 특징에 따라 수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뿐 아니라 스트레스 원으로서 작용될 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해야 하는 역할이 갈등스럽거나, 모호하거나, 과중할 경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원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활동의 자율성으로 대표되는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는 스트레스원과 결과에 대해

중재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 수준이 높으면 이것이 스트레스원의 유해한 결과들을 약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요구-조절 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은 개인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 활동이 요구(demand)하는 정도와 개인이 활동을 조절(control)할 수 있는 정도가 수행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를 고, 저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를 조합 해보면, 네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조절 정도가 낮은 경우로 ‘고긴장(high strain) 활동’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활동의 요구 정도는 낮는데 조절 정도는 높은 ‘저긴장(low strain) 활동’이다. 세 번째는 활동의 요구 정도도 높고 조절 정도도 높은 ‘능동적인(active) 활동’이며, 네 번째는 활동의 요구 정도도 낮고 조절 정도도 낮은 ‘수동적인(passive) 활동’이다. 이 중에서 ‘고긴장 활동’이 수행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활동에 집중되어 왔다.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들은 주로 심장 질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 다수인데,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조절 정도가 낮을 때 혈압 상승, 뇌졸중, 심근 경색의 위험이 더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 Hall, 1988; Marmot, Bosma, Hemingway, Brunner, & Stansfield, 1997; Theorell, Tsutsumi, Hallquist, & Reuterwaltet, 1998). 연구자들은 신체적 측면 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왔는데, 일반적으로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가 낮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rnett & Brennan, 1995; Beehr & Drexler,

1986; Karasek, 1979).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 등 활동 자체의 특징 외에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절감한 Johnson과 Hall(1988)은 ‘요구-조절 모델’에 ‘지지’를 추가하여 ‘요구-조절-지지 모델(Demand-Control-Support Model)’로 확장시켰다. 지지 정도는 가장 빈번하게 고려되는 스트레스 완충 변인으로 조절 정도 외에 이것 역시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수행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Johnson과 Hall(1988)은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조절 정도는 낮으며, 활동에 대한 주위의 지지 정도가 낮을 때 안녕감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고립 긴장 가설’이라 명명하였다.

‘요구-조절-지지 모델’을 적용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에 비해 지지 정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Dollard, Winefield, & de Jonge, 2000; Heaney, Price, & Rafferty, 1995; Hesketh & Shouksmith, 1986; Johnson & Hall, 1988; Jones & Fletcher, 2003; Karasek, Triantis, & Chaudhry, 1982; Lerner, Levine, Malspeis, & D’Agostino, 1994; Loscocco & Spitze, 1990; Roxburgh, 1996; Schaubroeck & Fink, 1998; Stansfeld, North, White, & Marmot, 1995; Van Yperen & Hagedoorn, 2003).

선행 연구들은 ‘고립 긴장 가설’을 검증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고 실제로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활동의 요구 정도도 낮고 조절 정도도 낮은 ‘저긴장 활동’이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Lerner et al., 1994), 또는 개인이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조절 정도도 높은 ‘능동적인 활동’을 할 때 오히려 동기 부여가 되어 자기 계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도 있다(Dollard, Winefield, & de Jonge, 2000; Van Yperen & Hagedoorn, 2003).

이상과 같이 ‘요구-조절-지지 모델’은 고령자가 수행하는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적용되어 왔으나, 손자녀 양육과 같은 돌봄 노동은 생산적 가치를 지닌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가정에 보육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전에도 외부인에 의한 유급의 사적 양육이 수행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무임금 가족 봉사자였던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역시 이와 동일선상에 있으며 생산적 활동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요구-조절-지지 모델’을 노인이 참여하는 손자녀 양육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이 활동이 노인에게 요구하는 정도는 어떠한지 또한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와 가족의 지지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 관련 변인들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을 이용한 선행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손자녀 양육의 요구 정도는 주관적 안녕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 정도와 지지 정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노인이 생활 환경에 잘 적응하여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념이 사용될 수 있는데, 적응의 정도를 판단하는 개념은 주로 ‘사기(morale)’, ‘행복감(happiness)’, 그리고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라는 용어들이었다. 그러나 ‘사기’는 노년기에 사용하는 도구로는 다소 한계가 있으며, ‘행복감’은 단기간의 정서적 안녕감을 다룬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는 행복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장기간의 상태를 파악하기는 하나 인지적인 측면만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들은

적응에 대한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George & Clipp, 1991). 이 때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 성원이 자신의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객관적인 조건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므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객관적인 접근보다는 주관적 접근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손자녀 양육 활동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손자녀 양육 노인의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규명함으로써 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손자녀 양육 활동을 계획하고 궁극적으로 참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이상과 같은 목적을 위해 상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손자녀 양육 활동 관련 변인들(요구 정도, 조절 정도, 지지 정도)과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손자녀 양육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 2.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한지 3개월 이상되

는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손자녀의 연령은 학령전의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노인이 손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와 별거하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연구 도구들이 노인에게 적합한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당 노인 4명을 임의 선정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서울시 중랑구, 은평구, 용산구와 중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연구 협조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서울의 송파구, 성북구와 경기도 분당 지역의 아파트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한 후 참여를 승낙한 노인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주의 친분있는 사람들을 통해 서울에 위치한 S사, P사, C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중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해 주는 경우를 소개받아 눈덩이 표집(snow balling)을 이용하여 유의 표집하였는데 이들의 거주지는 서울과 수도권이었다.

본 조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양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노인의 자택이나 자녀의 집을 방문하여 2006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를 수집한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일대일 면접 조사하였으며 면접 소요 시간은 평균 50분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노인의 연령은 만 60세부터 최고 72세까지로 60대가 87.0%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65.0세였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가 83.0%로 대부분 자신들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표 1〉 연구 대상의 특징

(N=100)

변 인	내 용	빈 도(%)
연령	60세 이상~64세 이하	48(48.0)
	65세 이상~69세 이하	39(39.0)
	70세 이상~74세 이하	13(13.0)
건강 상태	나쁜 편이다	17(17.0)
	좋은 편이다	76(76.0)
	매우 좋은 편이다	7(7.0)
종교	없다	20(20.0)
	개신교	28(28.0)
	불교	39(39.0)
	천주교	13(13.0)
학력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20(20.0)
	중학교 졸업	20(20.0)
	고등학교 졸업	36(36.0)
	대학교 졸업	23(23.0)
	대학원 졸업 이상	1(1.0)
이전 직업	전문직	13(13.0)
	사무직	7(7.0)
	생산직	2(2.0)
	단순노무직	4(4.0)
	영업직	2(2.0)
	자영업	21(21.0)
	농업	1(1.0)
	전업주부	50(50.0)
총 가계 소득	50만원 이하	10(10.0)
	51~100만원	24(24.0)
	101~150만원	1(1.0)
	151~200만원	27(27.0)
	201~250만원	22(22.0)
300만원 이상	16(16.0)	
주 소득원	일해서 버는 돈	30(30.0)
	연금	6(6.0)
	퇴직금	1(1.0)
	재산 소득	46(46.0)
	자녀가 주는 생활비	(17.0)
한달 용돈	10만원 이하	35(35.0)
	11~20만원	24(24.0)
	21~30만원	16(16.0)
	41~50만원	18(18.0)
	81~100만원	5(5.0)
	101~150만원	1(1.0)
151만원 이상	1(1.0)	

경제 상태	어려운 편이다	34(34.0)
	좋은 편이다	63(63.0)
	매우 좋은 편이다	3(3.0)
결혼 상태	기혼	71(71.0)
	이혼	2(2.0)
	사별	27(27.0)
거주 형태	독거	7(7.0)
	노인 내외만	23(23.0)
	결혼한 아들 내외	37(37.0)
	결혼한 딸 내외	15(15.0)
	노인 내외+미혼 자녀	18(18.0)
자녀 수	1명	9(9.0)
	2명	13(13.0)
	3명	34(34.0)
	4명	22(22.0)
	5명	17(17.0)
	6명	5(5.0)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불교(39.0%)’와 ‘개신교(28.0%)’가 많았으며,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이 각각 36.0%, 23.0%로 나타났다. 이전 직업으로는 ‘전업 주부(50.0%)’와 ‘자영업(21.0%)’, ‘전문직(13.0%)’이 많이 차지하였다.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총 가계 소득은 ‘151~200만원(27.0%)’, ‘50~100만원(24.0%)’, ‘201~250만원(22.0%)’의 순이었으며,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비율도 16.0%로 높았다. 주된 소득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소득(46.0%)’ 외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해서 버는 돈(30.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으며, 한달 용돈으로는 ‘10만원 이하’가 35.0%, ‘11~20만원’이 24.0%로 과반수의 노인들이 20만원 미만의 용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은 편이다’가 각각 63.0%, 3.0%였고, ‘어려운 편이다’는 34.0%를 차지하였다.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결혼 상태는 ‘기혼(71.0%)’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별’은 27.0%, ‘이혼’은 2.0%로 나타났다. 현재 같이 사는 가족은 ‘결혼한 아들 내외(37.0%)’, ‘노인 부부만 사는 경우(23.0%)’, ‘노인 부부와 출가하지 않은 미혼 자녀와 사는 경우(18.0%)’, ‘결혼한 딸(15.0%)’의 순이었다. 그리고 자녀 수는 1명에서 6명까지로 3명(34.0%)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명(22.0%), 5명(1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과 전국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국 여성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이상’의 비율이 각각 4.1%와 1.2%에 불과해 본 연구 대상의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월 평균 소득은 전국 노인 대상은 평균 112만원으로 본 연구 대상이 다소 높았으며, 한달 용돈은 전국 여성 노인의 평균 10만원이 29.2%로 본 연구 대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대 구성은 전국 평균 삼세대 이상 가구가 30.8%인데 반해 본 연구 대상은 52.0%로 확대가족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대상이 학력이나 소득 수준면에서 일반 노인보다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가족 형태는 손자녀 양육 상황을 반영하듯 삼세대 거주 가족이 많았다.

###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외에 이들이 수행하는 손자녀 양육 활동의 요구 정도, 활동의 조절 정도,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를 포함하였다. 이상의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활동의 요구 정도

활동의 요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arasek

(1979)의 ‘직무 활동 질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한국산업안전공단(2001)에서 표준화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활동 요구 정도란 시간 압박, 활동의 과중, 역할 갈등 등으로 4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였는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점부터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79였다.

#### 2) 활동의 조절 정도

활동의 조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arasek (1979)의 ‘직무 활동 질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한국산업안전공단(2001)에서 표준화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연구에 알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활동의 조절 정도란 기술 관련 재량권, 결정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4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점부터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의 조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81이었다.

#### 3)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는 King, Mattimore, King과 Adams(1995)가 개발한 ‘근로자를 위한 가족 지지 척도(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 FSIW)’와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 제작하였다.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정서적 지지에 관한 4문항, 도구적 지지에 관한 4문항 등 총 8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4점)’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점부터 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82였다.

#### 4) 주관적 안녕감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yff(1989)의 ‘심리적 긍정적 기능 척도(Psychological Positive Functioning)’의 18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자아 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감, 인생의 목표, 개인적 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Ryff(1989)의 원래 척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6점)’로 6점 척도이나 예비 조사 결과 연구 대상이 6점 척도로 세분화하여 응답하는 능력이 떨어져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90이었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손자녀 양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 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 1과 관련하여 손자녀 양육시 활동의 요구 정도, 활동의 조절 정도,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 문제 2와 관련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활동의 요구 정도, 활동의 조절 정도,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연구 대상 노인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손자녀 양육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손자녀 양육 활동의 특징

손자녀 양육의 특징에 관한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손자녀 양육을 본인이 원해서였는가의 질문에 응답자의 81.0%만이 자발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동기는 ‘같이 사니까 자연스럽게(32.0%)’,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18.0%)’, ‘자녀들과 교류를 증대시키려고(14.0%)’의 순서였다. 이 외에도 ‘자녀가 원해서(13.0%)’, ‘시간을 보내기 위해(12.0%)’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18.0%)’와 ‘자녀가 원해서(13.0%)’의 응답은 양육을 담당한 기관이 마땅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들과 교류를 증대시키려고(14.0%)’, ‘시간을 보내기 위해(12.0%)’의 응답이 시사하는 바는 노년기에도 사회적 관계의 욕구, 특히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 손자녀 양육을 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한편 여가의 일환으로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자녀 양육에 참여한 기간은 ‘37~48개월(20.0%)’, ‘25~36개월(18.0%)’이 가장 많았으며, 두 명 이상을 계속적으로 양육한 경우 ‘87개월 이상(3.0%)’도 있었다. 하루에 손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5~6시간(42.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시간 이하(31.0%)’였는데, 최장 ‘18시간’인 경우도 있었다. ‘5~6시

간'이 가장 많았던 것은 손자녀의 연령은 '25~36개월'과 '37~48개월'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 연령대는 교육 기관에 다닐 수 있고, 그런 경우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그만큼 제외되어 나타난 수치로 생각된다.

돌보는 손자녀와의 관계는 친손주인 경우가 62.0%, 외손주인 경우는 38.0%였다. 외손주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던 것은 딸이 결혼 후 친정 가까이 살다가 출산 후 자연스럽게 친정 어머니가 양육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육하는 손자녀의 수는 '1명(86.0%)', '2명(13.0%)', '3명(1.0%)'으로 나타나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손자녀의 성별은 첫째 손자녀는 남녀 50명씩 같았고, 둘째 손자녀는 남아가 6명, 여아가 7명이었다. 첫째 손자녀의 연령은 '25~36개월'과 '37~48개월'이 각각 19.0%, 17.0%로 나타났으며, 둘째 손자녀의 연령은 '12개월 이하(5.0%)', '13~38개월(6.0%)'이었다.

자녀가 사는 곳과 노인이 사는 곳과의 거리는 '같은 집에 산다'가 52.0%, '같은 동네에 따로 산다'가 43.0%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내용으로는 '차로 1시간 이상' 또는 '먼 지방에 산다'였다. 손자녀를 돌보는 장소로는 '노인의 집'이 52.0%, '자녀의 집'이 39.0%였고, '변갈아가며'는 9.0%였다. 참여 동기 중 '같이 사니까 자연스럽게'의 순위가 가장 높았던 것과 같이 자녀와 노인이 '같은 집에 산다'는 비율이 52.0%로 가장 높았다. '같은 동네에 따로 산다'가 43.0%로 양육을 위해서는 자녀와 같이 살거나 가까운 거리에 살 수 밖에 없으므로 손자녀 양육은 '자녀들과 교류를 증대시키려고'의 동기와 부합하는 활동일 수 있다.

손자녀가 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는가의 여부는 '다닌다'가 62.0%, '다니지 않는다'가 38.0%였다. 활동시 금전적인 보상은 '없음'과 '31~50만원'이 각각 39.0%, 23.0%로 나타났다. 개

선 사항 중 '금전적인 보상이 더 많아졌으면(14.0%)'의 응답에서 보듯이 양육에 대한 대가를 중시하는 입장도 있었다.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78.0%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상당하여 21.0%를 차지하였다.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참여 초기 자발성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것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의 반해 행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에 기인할 수 있다.

또한 손자녀 양육은 활동 시작과 종료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한 응답자는 하루 활동 시간이 18시간인 경우도 있었고, 돌보는 손자녀의 수는 '1명'이 대부분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명'까지 돌보는 경우도 있었다. 활동의 강도는 양육 대상의 연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신체적으로 요구하는 정도가 높고, 오랜 시간동안 일 대 일로 양육을 담당해야 하므로 노인이 개인적인 시간 사용에 제약이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느껴서 불만족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사교적인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32.0%)', '없다(21.0%)', '건강에 신경 쓸 여유가 있었으면(18.0%)'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은 '금전적인 보상이 더 많아졌으면(14.0%)', '양육 방식에 대해 자녀와 의견이 잘 맞았으면(14.0%)'이었다. 건강상의 문제나 사회적 제약 등은 Minkler와 Roe(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도 일치하는데 사교적인 기회 증가와 건강에 관한 관심을 희망하는 것은 노인의 사회적인 욕구가 높고, 활동 수행이 과중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양육 방식에 대해 자녀와 의견이 잘 맞았으면'을 원하는 것을 볼 때 양육 방식의 차이가 부모와 자녀간에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손자녀를 돌 볼 것이라는 응답이 69.0%로 낮았다.

〈표 2〉 손자녀 양육의 특징

(N=100)		
변인	내용	빈도(%)
자발성	원함	81(81.0)
여부	원하지 않음	19(19.0)
참여 동기	같이 사니까 자연스럽게	32(32.0)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18(18.0)
	자녀들과 교류를	14(14.0)
	중대시키려고	14(14.0)
	자녀가 원해서	12(12.0)
활동 기간	시간을 보내기 위해	11(11.0)
	12개월 이하	9(9.0)
	13~24개월	18(18.0)
	25~36개월	20(20.0)
	37~48개월	16(16.0)
	49~60개월	14(14.0)
	61~72개월	12(12.0)
	73~86개월	3(3.0)
1회 활동 시간	87개월 이상	31(31.0)
	4시간 이하	42(42.0)
	5~6시간	16(16.0)
	7~8시간	11(11.0)
손자녀와 관계	9시간 이상	62(62.0)
	친손주	38(38.0)
첫째 손자녀의 연령	외손주	13(13.0)
	12개월 이하	9(9.0)
	13~24개월	17(17.0)
	25~36개월	19(19.0)
	37~48개월	15(15.0)
	49~60개월	15(15.0)
	61~72개월	10(10.0)
	73~86개월	2(2.0)
자녀 거주지와 의 거리	87개월 이상	52(52.0)
	같은 집에 산다	43(43.0)
	같은 동네에 따로 산다	3(3.0)
	차로 1시간 이상 가는 곳에 따로 산다	2(2.0)
	아주 멀리 먼 지방에 따로 산다	
돌보는 장소	자택	52(52.0)
	자녀의 집	39(39.0)
	변갈아가며	9(9.0)

교육		
기관	기관에 다님	62(62.0)
재원	기관에 다니지 않음	38(38.0)
여부	없음	39(39.0)
	10~20만원	21(21.0)
	21~30만원	13(13.0)
	31~50만원	23(23.0)
활동 만족도	51만원 이상	4(4.0)
	불만족한다	21(21.0)
	만족한다	78(78.0)
향후 활동 여부	매우 만족한다	1(1.0)
	계속 한다	69(69.0)
	그만 둔다	31(31.0)

2. 손자녀 양육 활동 관련 변인들과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손자녀 양육 활동 관련 변인들과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손자녀 양육을 하는 노인의 활동의 요구 정도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부적 관계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활동의 조절 정도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r=.212(p<.05)$ 로 정적 관계를 보여, 활동의 조절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높았다.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r=.753(p<.01)$ 으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많을수록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는데 정서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r=.755(p<.01)$ 였으며, 도구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r=.608(p<.01)$ 이었다. 즉,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모두 지지가 많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522(p<.01)$ 로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손자녀 양육 활동의 요구 정도, 활동의 조절 정도 및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N=100)

변 인	r
활동의 요구 정도	-.126
활동의 조절 정도	.212*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753**
정서적 지지	.755**
도구적 지지	.608**

\*  $p < .05$  \*\*  $p < .01$

3. 손자녀 양육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 변인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활동의 객관적인 특징, 활동시 수행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와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시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안녕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변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Diener, 1984; Brief, Butcher, George, & Link, 1993),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기본적인 통제 변인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 투입에 앞서 독립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변인간 상호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1>과 같다. 독립 변인들간의 상관 계수는  $r=-.480(p<.001)$ 부터

〈표 4〉 손자녀 양육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N=100)

변 인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beta$	$\beta$
연령	-.03	-.01	-.05
결혼 상태	-.22+	-.18+	-.20**
자녀와의 동거 상태	.08	.10	-.04
총 가계 소득	.11	.23	.24*
주관적 경제 상태	.23+	.24+	-.02
건강	.03	.04	.03
종교	-.03	-.05	.06
학력 수준	.06	.02	.03
활동의 요구 정도		-.14	-.02
활동의 조절 정도		.24*	.09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23*	.19**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68***
활동에 대한 만족도			.02
$\Delta R^2$	.27***	.11**	.36***
$R^2$	.27	.38	.74
F	4.18***	4.94***	18.7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제 1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여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독립 변인으로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연령, 결혼 상태, 자녀와의 동거 상태, 총 가계 소득, 주관적 경제 상태, 건강, 종교, 그리고 학력 수준이었다. 다음 제 2단계에서는 손자녀 양육 활동시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특징으로 활동의 요구 정도와 활동의 조절 정도, 활동시 금전적인 보상을 투입하였다. 마지막 제 3단계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노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와 활동에 대한 만족도

를 투입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제 1단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27.0%였다( $p < .001$ ). 이 중 결혼 상태( $\beta = .22, p < .10$ ), 주관적 경제 상태( $\beta = .23, p < .10$ )만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 상태가 양호할수록,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제 2단계에서는 손자녀 양육 활동의 객관적인 특징이 첨가되어 11.0%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p < .001$ ), 전체적으로는 38.0%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결혼 상태( $\beta = .18, p < .10$ )와 주관적 경제 상태( $\beta = .24, p < .10$ )는 여전히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활동의 조절 정도( $\beta = .24, p < .05$ )와 금전적 보상( $\beta = .23, p < .05$ )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관적인 경제 상태가 양호할수록, 노인이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많을수록, 노인의 안녕감이 높았다.

마지막 제 3단계에서 노인이 손자녀 양육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와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첨가했을 때, 36.0%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p < .001$ ),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전체 변량의 74.0%를 설명하였다. 최종적으로 결혼 상태( $\beta = .20, p < .01$ ), 총 가계 소득( $\beta = .24, p < .05$ ),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beta = .19, p < .01$ )이 여전히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beta = .68, p < .001$ )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요약해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가계 소득이 많을수록,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이 많을수록,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 1. 손자녀 양육 활동 관련 변인들과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과의 관계

먼저 손자녀 양육 활동의 요구 정도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에 쫓겨서 해야 하거나, 활동의 양이 많거나, 역할이 모호한 것 등 개인에게 요구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안녕감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활동의 요구 정도에 관한 문항 중 ‘활동시 해야 할 일의 양이 많다’는 문항이 활동의 요구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이었는데,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상당히 과중한 활동일 수 있다.

왜냐하면 활동의 특성상 양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손자녀가 영아인 경우 먹이고, 씻기고, 입히는 등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는 즉시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유식을 만들거나, 기저귀 또는 옷을 세탁하는 등의 가사 노동도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므로 아동 양육과 가사 노동과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노인이 담당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손자녀의 연령이 증가하여 손자녀가 환경에 대한 탐색이 증가하고 자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할수록 아이에 대한 노인의 주의와 관심도 배가되어야 하므로 신체적인 에너지 소비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

더불어 인지적인 상호 작용도 병행해야 하는 활동이다. 또한 손자녀 양육은 활동 시간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항상 손자녀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고 있어야 하므로 정신적인 긴장감 내지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활동에 대한 노인의 조절 정도는 노인의 안녕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White(1959)가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조절하려는 내적인 욕구가 있다고 한 것과 같이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가 높다는 것은 방법이나 결정에 재량권이 많아 본인이 활동 수행 상황을 제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율성이나 통제력을 소유한 것으로 지각되어 정신 건강에는 득이 될 수 있다. 손자녀 양육은 여성 노인이 예전에 자녀를 키웠던 경험을 재 활용할 수 있어 자기 고유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활동은 집단 활동시에 존재하는 감독관이나 동료의 의견에 좌우될 필요 없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지지 정도를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높았다. 즉, 노인이 손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가족이 노인에게 보이는 지지 정도는 일반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년기일수록 사회적 지지의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 얻어진다는 Cobb(1976)의 주장 뿐 아니라 Kahn과 Antonucci(1980)는 호위대 모델(Convoy Model)에서 가족의 지지가 안녕감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가족은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제공하는 근원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사는 동안 여러 유형의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만 가장 친밀하게,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라는 점에서 노년기의 가족 관계는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중

요할 수 있다.

이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장과도 관련되는데 인간은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관심을 보여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노인에게 중요한 존재인 가족이 손자녀 양육 활동에 대해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 2. 손자녀 양육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결혼 상태, 총 가계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는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유의한 변인이었다. 이 변인들은 주관적 안녕감의 74.0%를 설명하였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가계 소득이 많을수록,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많을수록,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많을수록,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

이 중에서 결혼 상태, 즉, 배우자의 유무가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배우자 존재가 안녕감에 긍정적이라는 선행 연구들(Connidis & McMullin, 1993; Lubben, 1989; Reinhardt & Fisher, 1989)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유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도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가족 구성원 중 배우자가 가장 많이 차지한 것과 같이 자녀나 손자녀 외에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의 존재는 노인에게 중요한 지지

원이다. 자녀 출가 후 부부만의 빈둥우리 시기를 경험하면서 결혼 만족도가 다시 증가하듯이 노년기에 서로에 대한 의존감은 클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 유발 사건의 최우선 순위가 배우자의 사망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7, 8년이 긴 현실을 볼 때 유배우자의 조건은 연령상으로도 덜 연로한 상태이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고, 경제적으로도 덜 빈곤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혼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셋째, 배우자와 사별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로움 때문에 자녀와 동거가 불가피하고,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배우자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총 가계 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은 경제적 수준이 노인 문제의 직·간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안녕감에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김지훈, 1997; 이선미·김경신,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은 필수적일 뿐 아니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에 대한 욕구 역시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 여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증가되는데 비해 실제로 경제 생활에 종사하는 기간은 감소하고 있어 수입없이 지출만 해야 하는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예전에는 성인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세대가 변화하여 자녀의 사고 뿐 아니라 부모 자신도 노년기에 자립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소득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역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총 가계 소득이 영향을 미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구 대상 중 손자녀 양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경우는 61.0%로 이 중 '31~50만원(23.0%)'이 가장 많았다. 더욱이 양육에 대한 수고비는 소득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노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롭지 않을 때 양육을 통해 보상을 받는다면 실제 받는 금액보다 그 의미는 더 크게 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대상 대부분이 이전에 전업 주부였던 것을 감안하면 자신의 노동 대가로 받게 되는 생애의 첫 임금일 가능성이 높고, 그 만큼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활동과 관련된 변인 중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보였는데, 가족으로부터 활동에 대한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안녕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활동이기는 하나 활동의 요구 정도나 조절 정도보다 지지 정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던 Van Yperen과 Hagedoorn(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가 영향력이 더 컸던 이유로 첫째, 손자녀 양육과 같이 돌봄에 관한 활동은 사회화 과정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Chodorow(1973)는 '성-역할 사회화(gender-role socialization)'라 하여 남성에게는 자율성, 도구적 행동을 강조하며, 여성에게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민감성, 양육적 행동 등을 강조하는 사회화 과정이 아동기를 거쳐 내면화되며, 문화적 규범에 의해 계속적으로 강화된다고 하였다(Miller & Cafasso, 1992, 재인용). 이와 같이 여성은 정서적, 관계지향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어 왔으므로 타인이 보여주는 지지 정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둘째, 활동이 발생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손자녀 양육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생활환경이 동일한 경우이므로 손자녀 양육 활동과 가정생활이 유입(spill-over) 되는 관계의 방향성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활동 자체의 특징보다는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정체성은 관계적 사건과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직업 성취와 더 관련이 있다는 French와 동료들(1995)의 연구에서와 같이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은 양육을 일종의 노동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가족 관계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활동의 요구나 조절 정도보다 지지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변인들보다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지의 역할은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하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약화와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하여 사회 관계의 축소를 경험하게 되는 노년기에 더욱 긴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지가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 상실과 소외감 등을 줄이며 생활 사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발달상의 성장보다는 쇠퇴가 이전 시기보다 많은 노년기에 사회적 지지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를 입증하는데 노인이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활동에 대한 성과나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인수, 2000; 김혜선, 2005; Baruch-Feldman, Brondolo, Ben-Dayana, & Schwartz, 2002; Conner, Dorfman, & Thompkins, 1985; Dorfman & Moffet, 1987; King et al., 1995;

Riddick, 1985; Shapiro & Roos, 1982).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에게 가족의 지지 정도가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지의 지각에 대한 개인차이다. 즉 가족이 제공하는 지지의 양과 노인이 지각하는 지지의 양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Roxborough (1996)는 여성과 남성이 가족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고 여성이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노인에게 가족이 동일한 수준의 지지 정도를 보인다고 해도 여성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손자녀 양육 집단 중 ‘자녀와의 교류를 증대시키려고’의 동기도 상당수였듯이, 가족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라도 증가시켜 친밀감을 느끼고자 하는 바램을 가진 노인에게 가족의 지지는 실제 제공된 양보다 주관적으로는 더 많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가족의 지지가 노인의 존재 가치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장 뿐 아니라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자녀와 동거하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일 때 손자녀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서병선 (1995)의 연구에서처럼 노인이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존재이기 보다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임을 부각하여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정립하는데 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가족의 지지가 수반된다면 자신을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지지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지를 기능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으로 구분하는데, 후자의 경우 노인이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지원은 가족에 한정되기 쉽다. 이는 향후 희망 사항으로 ‘사교적인 기회가 많아졌으면’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외부 활동

등 다른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이런 경우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노인이 접하게 되는 대인 관계는 가족에게 국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다른 어느 사회적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김혜선(2005)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노인이 정서적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며, 따라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에게 가족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내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자녀 양육 노인에게 제공되는 가족 지지의 중요성이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활동이지만 다른 활동 관련 변인들보다 가족의 지지가 노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임을 공감하고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가족이 적극적으로 정서적, 도구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이나 간병과 같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노동에 대해서는 평가가 인색한 것이 사실 이었고, 수행자의 봉사나 희생으로 정당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손자녀 양육 노인에게 양육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듯이,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 자신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가족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보상을 정례화함으로써 참여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가족의 사고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으

로 예상된다.

셋째, 개선 사항 중 ‘사교적인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32.0%)’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사교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손자녀 양육 노인들간에 자조 집단을 형성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으로 조사 대상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표집이 아니므로 결과 적용의 일반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방법으로 모델 검증을 위해 양적 연구를 위주로 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보육 도우미나 타인에 의한 유급 보육이 증가하는 현실과 조사 대상의 61.0%가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있음을 볼 때 가족 구성원에 의한 양육 역시 생산적 활동의 일부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나 그동안 도외시 되어 온 손자녀 양육에 ‘요구-조절-지지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단순한 실태 조사 수준을 넘어서 양육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 지지 정도 등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양육에 참여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시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접 수 일 : 2006년 06월 23일
- 심 사 일 : 2006년 06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8월 10일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부록 1〉 독립 변인들간의 상호 상관 계수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연령	1.000	.228*	-.075	-.168*	-.115	-.147	.013	-.177*	.165	.160	-.101	.001	-.022
(2) 결혼 상태		1.000	-.233*	-.480***	-.452***	-.195*	-.055	-.190*	-.074	-.067	.100	-.163	-.194*
(3) 거주 상태			1.000	.175	.026	-.011	-.070	.136	.258**	.120	-.076	.198*	-.247**
(4) 총 가계 소득				1.000	.664***	.157	.213*	.522***	-.133	-.093	-.323**	.189*	.354***
(5) 주관적 경제 상태					1.000	.195*	.181*	.270**	.019	-.029	-.022	.034	.197*
(6) 건강						1.000	.115	.010	.019	-.029	-.022	.034	.197*
(7) 종교							1.000	.055	-.076	.008	-.043	-.097	.119
(8) 학력 수준								1.000	.021	-.119	.071	.059	.132
(9) 활동의 요구 정도									1.000	.084	.179*	-.152	-.272**
(10) 활동의 조절 정도										1.000	.094	.184*	.065
(11) 금전적 보상											1.000	-.048	-.155
(12) 가족의 지지 정도												1.000	.280**
(13) 활동 만족도													1.000

\*  $p < .05$  \*\*  $p < .01$  \*\*\*  $p < .001$

## 【참 고 문 헌】

- 1) 권인수(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2) 김지훈(1997). 농촌 노인 단독 가구 노인의 성인 자녀 관계와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 김혜선(2005). 농촌과 도시 지역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8(여름호), 341-378.
- 4) 서병선(1995). 조모의 손자녀 대리 양육 수행과 만족도 연구-취업모를 자녀로 둔 여성 노인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6) 이선미, 김경신(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 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39-157.
- 7) 조선일보(2006). 2006년 5월 9일자.
- 8) 한국산업안전공단(2001).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
- 9) 한혜자, 류창희, 이영세(2001). 조부모가 제공하는 도움과 이에 따른 만족도. 노인복지연구 봄호, 195-211.
- 10) Barnes-Farrell, J. L.(2005). Older Workers. In J. Barling (Eds.), *Handbook of Work Stress*(pp. 431-454). SAGE.
- 11) Barnett, R. C. & Brennan, R. T.(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6(3), 259-276.
- 12) Baruch-Feldman, C., Brondolo, E., Ben-Dayan, D., & Schwartz, J.(2002).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Journal of Occupational and Health Psychology* 7, 84-93.
- 13) Bass, S. A. & Caro, F. G.(1996). The economic value of grandparent assistance. *Generations* 20(1), 29-33.
- 14) Beehr, T. A. & Drexler, J. A.(1986). Social support, autonomy, and hierarchical level as moderators of the role characteristics-outcome relationship,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7(3), 207-214.
- 15) Brief, A. P., Butcher, A. H., Geroge, J. M., & Link, K. E.(1993). Inter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4), 646-653.
- 16) Burton, L. M.(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The Gerontologist* 32(6), 744-751.
- 17) Burton, L. & Devries, C.(1992). Challenges and rewards: African American grandparents as surrogate parents. *Generations* 16(3), 51-55.
- 18)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19) Conner, K. A. Dorfman, L. T., & Thompkins, J. B.(1985). Life satisfaction of retired professors: The contribution of work, health, and length of retirement. *Educational Gerontology* 11, 337-347.
- 20) Connidis, I. A. & McMullin, J.(1993). To have or have not: Parents status and

-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men and women. *The Gerontologist* 33(5), 630-636.
- 21)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47.
- 22) Dollard, M. F., Winefield, H. R., & de Jonge, J.(2000). Psychosocial job strain and productivity in human service workers: A test of the demand-control-support model,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3, 501-510.
- 23) George, L. K. & Clipp, E. C.(1991). Subjective components of aging well. *Generations* 15(1), 57-61.
- 24) Hayslip, B., Shore, J., Henerson, C. E., & Lambert, P. L.(1998). Custodial grandparenting and the impact of grandchildren with problems on role satisfaction and role meaning. *Journal of Gerontology* 53(3), 164-173.
- 25) Heaney, C. A. & Price, R. H., & Rafferty, J.(1995). Increasing coping resources at work: a field experiment to increase social support, improve work team functioning, and enhance employee mental healt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6(4), 335-352.
- 26) Hesketh, B. & Shouksmith, G. (1986). Job and non-job activities, job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among veterinaria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7(4), 325-339.
- 27) Jendrick, M.(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s. *The Gerontologist* 34(2), 206-216.
- 28) Johnson, J. V. & Hall, E. M.(1988). Job strain, work place social support, and cardiovascular disease: a cross-sectional study of a random sample of the Swedish working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8(10), 1336-1342.
- 29) Jones, F. & Fletcher, B.(2003). Job control, physical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 J. Schabracq(Eds.), *Handbook of Work and Health Psychology* (pp. 121-142). John Wiley & Sons Inc.
- 30) Kahn, R. L. & Antonucci, T. C.(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 253-286.
- 31) Karasek, R. A.(1979).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 285-308.
- 32) Karasek, R. A., Triantis, K. P., Chaudhry, S. S.(1982) Coworker and supervisor support as moderators of associations between task characteristics and mental strain,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3(2), 181-200.
- 33) King, V. & Elder, G. H.(1998). Perceived self-efficacy and grandparenting. *Journal of Gerontology* 53(5), 249-257.
- 34) King, L. A., Mattimore, L. K., King, D. W. & Adams, G. A.(1995). 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s: A new measur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s* 16(3), 235-258.
- 35) Lerner, D. J., Levine, S., Malspeis, S., & D'Agostino, R. B.(1994). Job strai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 national sampl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10), 1580-1585.
- 36) Loscocco, K. A. & Spitze, G.(1990).

- Working conditions, social support, and the well-being of female and male factory worke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December), 313-327.
- 37) Lubben, J. E.(1989).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of widow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low income elderly. In L. Garu(Ed.), *Women in the later years: Health,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pp. 161-189). New York : Harrington Park Press.
- 38) Marmot, M., Bosma, H., Hemingway, H., Brunner, E., & Stansfield, S.(1997). Contribution of job control and other risk factors to social variations in coronary heart disease incidence. *The Lancet* 359(9073), 235-239.
- 39) Miller, B., & Cafasso, L. (1992).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ing: Fact or artifact? *The Gerontologist* 32, 498-507.
- 40) Minkler M. & Roe, K. M.(1996). Grandparents as surrogate parents. *Generations* 20(1), 34-38.
- 41) Minker, M., Roe, K. M., & Price, M.(1992). Th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crack cocaine epidemic. *The Gerontologist* 32(6), 752-761.
- 42) Pinquart, M. & Sorensen, S.(2001).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 age: A meta-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51(4), 242-250.
- 43) Reinhardt, J. P. & Fisher, C. B.(1989). Kinship versus friendship: Social adaptation in married and widowed elderly women. In L. Garu(Ed.), *Women in the later years: Health,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 (pp. 161-189). New York : Harrington Park Press.
- 44) Riddick, C. C. (1985). Life satisfaction for older female home makers, retirees, and workers. *Research on Aging* 7, 383-393.
- 45) Roxburgh, S.(1996). Gender differences in work and well-being: Effects of exposure and vulne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 (September), 265-277.
- 46)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47) Schaubroeck, J. & Fink, L. S.(1998). Facilitating and inhibiting effects of job control and social support on stress outcomes and role behavior: a contingency model,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2), 167-195.
- 48) Shapiro, E. & Roos, N. P. (1982). Retired and employed elderly persons: Their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The Gerontologist* 22, 187-193.
- 49) Smith, J., Borchelt, M., Maier, H., & Jopp, D.(2002). Health and well-being in the young old and oldest old. *Journal of Social Issues* 58(4), 715-732.
- 50) Stansfeld, S. A., North, F. M., White, I., & Marmot, M. G.(1995). Work characteristics and psychiatric disorder in civil servants in London,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49(1), 48-53.
- 51) Theorell, T., Tsutsumi, A., Hallquist, J., Reuterwall, C. (1998). Decision latitude,

- job strain, and myocardial infarction: A study of working men in Stockhol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 382-388.
- 52) Van Yperen, N. W. & Hagedoorn, M. (2003). Do high job demands increase intrinsic motivation or fatigue or both? The role of job control and job social suppor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6(3), 339-348.
- 53) White, R. W.(1959). Motivation 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